



의안번호	제 2009 - 1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7. 20. (제19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1팀 제23차 회의 .....	1
1. 일시 · 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회의 요지 .....	1
가.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1
나. 기타 의견 .....	2
II. 2팀 제15차 회의 .....	2
1. 일시 · 장소 .....	2
2. 참석자 .....	3
3. 주요 안건 .....	3
4. 회의 요지 .....	3
가.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3
나. 기타 의견 .....	4
III. 제18차 전체 회의 .....	5
1. 일시 · 장소 .....	5
2. 참석자 .....	5
3. 주요 안건 .....	5
4. 회의 요지 .....	5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관관계 .....	5

---

나.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7
다. 기타 개선방안 논의 .....	7

IV. 향후 일정 .....	11
-----------------	----

별첨	김현석, “양형기준과 관련된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검토”
	박형관,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양형위원회 운용 방안에 관한 의견”
	이주형, “제1기 전문위원단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발전적 제언”
	김한균,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도발전을 위한 건의”
	김현석,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의 발전적 운영방향”
	윤정근, “전문위원단 운영 관련 검토의견”
	이호중, “전문위원단 운영에 대한 제언”



# I. 1팀 제23차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6. 4.(화) 17:20 ~ 18:2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2. 참석자(5명)

- 김현석,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방안

## 4. 회의 요지

### 가.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종전 전문위원 연구계획에 대한 과제 분장(양형심리절차 개선 방안은 이호중 전문위원이, 가석방 실태분석은 김한균 전문위원이 담당)을 유지하기로 함
- 다만, 남은 임기 동안 과제수행이 완결되지 못할 경우 2009. 7. 18.자로 새로 위촉되는 제2기 전문위원단이 계속 연구하기로 함

### (1) 양형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형의 논증 과정

이 판결문에 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필요성에 동의하나 종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법원의 시행 경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2)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왜곡된 형사실체법에 근거하여 양형기준을 수립할 경우 적절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 형사실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실체법 정비방안은 연구대상과 관련 쟁점이 방대하므로 우선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편,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실체법 정비 논의는 구체적 양형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가중 규정의 삭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나. 기타 의견

- 전문위원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II. 2팀 제15차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6. 1.(월) 16:00 ~ 17:0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2. 참석자(5명)

- 박영식, 박형관, 윤정근, 이천현, 최석윤 전문위원

## 3. 주요 안건

-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방안

## 4. 회의 요지

### 가.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전문위원단이 재정비되는 2009. 7. 17.까지 수행할 전문위원 2팀 과제의 재분장을 포함한 연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 현 전문위원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임기 내에 연구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행 사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원단이 연구과제를 이어받아 수행하기로 함

### (1)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부가조건 및 취소 등에 관한 연구의 주무전문위원을 '박형관/윤정근/최석윤 전문위원'으로 정함
- 현 단계로서는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고 오히려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2)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 주무전문위원을 '박영식 전문위원'으로 정함

- 별도의 연구과제인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과는 구별되는 과제로서, 양형기준 시행 전에 양형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봄으로써 양형기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과제임
- 운영지원단에서 양형기준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위원회 제16차 및 제17차 회의 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연구의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 (3) 재범 예측성 판단기준

- 주무전문위원을 ‘이천현 전문위원’으로 정함
- 전 전문위원 조은경 교수의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양형인자 추출 연구보고서’(연구용역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

### (4)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제1기 양형기준 시행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 설정의 출발점이 되는 법정형 불균형 현상의 개선방안을 양형기준별 주무전문위원이 연구하기로 함
- 형법 총칙이나 형사실체법 전반에 관한 문제점 또는 정비방안 연구는 이천현, 최석윤 전문위원이 공동주무위원을 담당하기로 함

### 나. 기타 의견

- 그 동안의 전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 의견이 있는 전문위원은 이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Ⅲ. 제18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7. 13.(월) 16:20 ~ 19:2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박영식, 박형관, 윤정근,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 최석운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관관계
-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기타 개선방안 논의

#### 4. 회의 요지

#####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관관계

- 운영지원단장이, 배포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관관계」에 따라 발표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불일치하는 유형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

-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일부 축소되는 경우  
⇒ 축소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경우  
⇒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서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선고

-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그대로 제시되거나, 일부 축소되더라도 법관의 양형재량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 많다고 평가됨

☞ 법률상 감경사유가 중복되거나, 특강(누범) 등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부 권고 형량범위와 법정형이 불일치하는 사안이 있지만,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시 법정형을 1회 감경한 수준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설정할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사안에서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법률상 처단형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권고 형량범위와 처단형이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경우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

- 발표자는 양형기준상으로 어떠한 권고 형량범위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형이유의 기재는 실무에 맡겨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나.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김현석 전문위원이, 배포된 「양형기준과 관련된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검토」에 따라 발표
  -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전제로서,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외에도 양형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위원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수행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실체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검토
- 이에 대하여, 실체법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만한 연구과제는 아니며, 보다 효율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대안 모색 없이 실체법만을 정비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양형위원회 업무를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정책 관련 연구(실체법 정비방안, 재범위험성 판단, 가석방 실태분석 등)로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기준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편, 양형위원회의 실체법 관련 연구성과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의 관련 연구성과를 양형위원회에서 제공받아 검토함으로써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 기타 개선방안 논의

- 전문위원 임기 만료(7. 17.자)를 앞두고, 그 동안의 전문위원 활동에 대한 소회 및 개별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

- 박형관 전문위원은, 배포된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양형 위원회 운용 방안에 관한 의견」에 따라 발표
  - 전문위원단에는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 상근조직인 운영지원단에는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므로 전문위원단을 폐지하고 전문위원들을 운영지원단의 일원으로 통합하여 일부는 상근화하는 방안이 바람직
  - 만일 전문위원단을 존치할 경우 중립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팀과 수석전문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 중 일부를 상근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
  - 교정, 보호관찰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
  -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용이 바람직
  - 전문위원 연구성과에 대한 소통을 위해 양형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 이주형 전문위원은, 배포된 「제1기 전문위원단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발전적 제언」에 따라 발표
  - 전문위원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역별로 상근 전문위원 1인씩을 두는 방안 필요
  - 전문위원단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직역별로 전문위원들이 순환하여 수석전문위원직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
  - 운영지원단 속에 전문위원 체제를 통합한 다음 운영지원단장을 중립적 인사로 선정
  - 보호관찰관과 교도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
  -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전문위원단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쟁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박영식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짧은 기간에 대륙법계 국가 중 최초로 양형기준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양형위원회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
- 전문위원단 회의를 주재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기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제도가 반드시 필요
- 양형기준이 양형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관인 운영지원단장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김한균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양형기준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
- 다만 양형기준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그 자체로서 폐쇄적인 새로운 법체계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 양형위원회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 주제를 차기 전문위원단의 첫 연구과제로 하는 방안 검토

○ 최석윤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다종다양한 쟁점에 관한 개별 전문위원들의 입장이 적절히 조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도출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
- 다만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추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실체법 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위원회에서는 양형에 관한 관점에서 실체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별 조문이라든지 법체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실체법과의 관련성 등을 연구하는 양형위원회 차원의 별도 검토가 필요

○ 김용철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본 회의는 쟁점별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전문위원들이 각자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고 소회라든지 아쉬웠던 부분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 이호중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기본적으로 양형기준 연구과제는 세부적인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검토하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1년간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수석전문위원제나 총괄팀의 폐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차기 전문위원단에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윤정근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대륙법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그 동안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초 양형기준을 성공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에 따른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됨
-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비교법적으로도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이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됨
- 양형기준 설정 절차에서, 양형기준안이 1차 의결된 이후에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수정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 간에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어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진선미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전문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힘들게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양형기준 수립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

○ 김현석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제1기 양형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다양하게 구성된 전문위원단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은 입법례적으로나 다른 위원회 운영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양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
- 양형위원회에서는 특히 양형기준에 따라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석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상호간 또는 위원회와 전문위원간, 나아가 위원회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9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19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